

광양시 전국 최초 통합행정 플랫폼 오픈

‘MY광양’...단일 로그인 간편 사용
언제, 어디서든 행정서비스 제공
실시간 1대1 민원상담 채팅도

광양시는 지난 22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을 정식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플랫폼인 모바일 앱 ‘MY광양’을 정식 오픈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MY광양’은 웹과 앱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 4월21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을 갖고서 정식 운영하게 됐다.

시는 시범기간 중 접수된 30건의 오류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앱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로써 그간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MY광양’ 출시로 생긴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단일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행정 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전까지는 필요

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청년꿈터 등 여러 사이트를 번갈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MY광양’ 앱에 한 번 로그인하면 여러 사이트를 별도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8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스포츠크터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6개 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해당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에 한함), 행정안전부의 ‘보조급24’ 사이트와도 연계돼 행정정보의 공유도 가능해졌다.

‘MY광양’ 앱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실시간 1:1 민원상담 채팅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 대관, 문화강좌 신청, 체육시설 예약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앱에서 통합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전화로만 가능했던 ‘무료법률상담 예약’도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역시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 결제할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MY광양’ 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총 27개의 주요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한다. 복지정책, 생활정보, 시정 참여, 민원 상담 등 광양시의 핵심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인 점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복지정책 검색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 ▲모바일 도서관회원증 발급 ▲긴급복지 SOS 신청 ▲소상공인 지원 ▲읍면동 소식 ▲날씨 정보 ▲버스 정보 ▲병원·약국 정보 ▲재난 정보 알람 등이 포함돼 있다.

‘MY광양’ 앱은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중심 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나의메뉴 설정’ 기능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최대 14개까지 선택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별로 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디자인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정비, 신규 기능 도입은 물론, ▲전통시장 매뉴 결제·배송 서비스 ▲24시간 민원상담 챗봇(ChatGPT 기술 적용)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모드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능 등을 추가해, 전 연령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농촌체험 팜투어’ 도시민 유치 총력

이틀간 예비 귀농·귀촌인 25명 초청

고흥군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25명을 대상으로 농촌문화체험 팜투어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팜투어는 도시민에게 고흥의 농촌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흥의 농업자원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 농업관 및 스마트팜 농업관 견학, 선도 농가 치유 체험농장 방문, 선배 귀농 귀촌인과의 팀별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유자꾸기

만들기 체험과 쌀 채소 재배농가 견학을 통해 고흥의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한 뒤, 소록도를 방문해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어에 한 참가자는 “고흥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막연하게 품고 있던 꿈을 이번 투어를 통해 확실하게 됐다”며, “특히 선도 농가에서의 체험과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얻었고, 군 업무 담당자들의 고흥군 귀농귀촌 정책 설명도 매우 유익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칙칙폭폭 야시장 성료

지난 16일부터 3일간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2025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칙칙폭폭 야시장’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호평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 주최·곡성군 주관의 이번 야시장은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돼 많은 관광객이 야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됐다.

이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체험하고, 곡성을 내 상권까지 소비 동선을 넓히는 전방위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주)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을 내 상권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곡성군 11개 읍·면 마을 대표가 참여한 숲놀이 대항전은 각 읍·면 대표들이 팀을 이루어 숲을 던지고 응원하며 주민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

보성군, 재해 대비 부곡저수지 범람·붕괴 가정 모의 훈련

보성군은 지난 20일 보성읍 주봉리에 위치한 부곡저수지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민관 합동 비상 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저수지 범람 및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능력 점검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보성군을 비롯해 보성소방서, 보성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재난 상황 접수 및 보고 ▲주민 대피 유도 ▲제방 응급 복구 등 단계별 위기경보(주의·경계·심각·중요)에 따라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주시 문수동 새마을부녀회 거동 불편 어르신 마사지 봉사

여주시 문수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9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사지 봉사활동인 ‘사랑을 전하는 심장이 쿵! 심쿵데이’(이하 심쿵데이)’를 가졌다.

‘심쿵데이’는 손발에서 시작해 마음(심장)으로 사랑이 전달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을 자극함으로써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부녀회 회원 10여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발 근육을 풀어주며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묻는 등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금까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다가 복지관 어르신들을 뵈니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문수동 어르신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수동 새마을부녀회는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점심 식사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랑의 열매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만 씨워킹’이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파랑길 순천만 갯벌 들녘 구간.

남파랑길 걸으며 자연과 교감 만끽해요

‘순천만 씨워킹’ 참가자 큰 호응

순천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인 ‘순천만 씨워킹’의 호감도가 커져 가고 크다.

‘순천만 씨워킹’은 생명력 넘치는 순천의 남파랑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의 교감으로 진정한 치유의 가치를 경험토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달에는 지난 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6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장산마을과 순천만습지를 잇는 하프코스(2시간 30분)와 화포해변·거차마을·구룡역을 연결하는 풀코스(5시간 30분)가 운영됐다.

초여름 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천만의 갯벌과 들녘, 지역 마을에 얽힌 생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고, 특히 갯벌 구간에서는 쾡뽕어와 칠게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며 걷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순천만 씨워킹’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6월에는 7일과 21일에 진행된다. 7일에는 장산마을에서 용산보조전망대까지, 21일에는 와온해변에서 화포해변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순천시 바로예약 누리집 또는 전화(061-749-5809)를 통해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